

해양수산 산업동향

OCEAN · FISHERIES · INDUSTRY · TRENDS

발행인 장영태 |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799 | FAX. 051-797-4759

5월
2020

www.kmi.re.kr



해양수산물경제

- 베트남 수산물 수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세 지속 전망
- 코로나19 위기 속, 신선 및 냉동 연어 가격 안정화 추세
- 2020년 세계 포위당시장 성장을 최대 7.5% 감소 예측
- 세계 물류·공급사슬 산업 시장,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32억 달러 규모 전망
- 디지털 조선소 시장, 2030년까지 39억 6,7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LNG 수요 감소
- 호주, 산호초 백화현상을 예방할 인공구름 조성실험 실시
- 미국 코넬 대학,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자외선 분해 소재 개발

해양수산업

- 영국 HydroWing사, 조류에너지로 수소 생산하는 부유식 플랫폼 개발
- 미국 Vigor Fab사, ABB사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체결
- 중국 Cosco Shipping, 샤먼항에서 5G 지원 자동 차량 시험 완료
- 러시아 Russian Crab Group사,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실적 호조
- 영국 Kuul Foods사, 해산물 판매용 전자 상거래 플랫폼 출시
- 일본 Daifuku사,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자재관리시스템 매출 신장

해양수산업정책

- 미국, 안정적 식량 공급위해 7천만 달러 규모 수산물 구매 결정
- 미국 상무부, 어업분야에 재해 자금 8천 8백만 달러 지원
- 미국 NOAA, 해양 심층 탐사를 위해 업계와 협력
- UN Global Compact, 해양 관련 공급망의 지속적 가동을 위한 권고안 발표
- 일본 국토교통성, 해산산업미래상 보고서 검토위원회 개최
- 대만, 컨테이너선사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발표
- UNCTAD,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권고안 발표
- 영국 항만협회, 경제 회복을 위한 녹색 투자 및 Free-ports 촉구

해양수산 산업동향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99) 또는 이메일(jiwon@kmi.re.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경제



베트남 수산물 수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세 지속 전망

베트남 수산물 수출·생산자 협회(Vietnam Association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베트남 수산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베트남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EU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들 국가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대중국 수출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VASEP은 2분기 수산물 수출을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한 2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1분기 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2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수출액 감소에는 베트남의 양대 수출 품목인 팡가시우스(베트남메기)와 새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12% 정도 감소하였다.

한편, 베트남 1분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데 반해, 수산물 총 생산량은 전년 0.4% 증가한 220만 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식수산물 비중은 100톤 수준이다. 특히 베트남 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EU, 중국으로, 1분기 수출액의 58%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본으로 2.2% 증가한 3억 1,330만 달러, 미국으로 1.2% 증가한 2억 8,68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EU와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28.3% 감소한 1억 8,570만 달러와 27.5% 감소한 1억 4,56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원문 | <https://vietnamnews.vn/economy/716438/seafood-exports-continue-reduction-in-q2.html>

코로나19 위기 속, 신선 및 냉동 연어 가격 안정화 추세

코로나19로 국경 폐쇄하였던 국가들의 개방이 점차 늘어나면서 연어 가격에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어 주요 생산국인 노르웨이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신선 및 냉장 연어 가격은 1kg 당 59 크로네(약 6 달러)를 조금 넘었다. 이는 전주 대비 3.8% 증가한 것이며,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이다.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이 전 주에 5.6% 증가하여 16,800 톤이 조금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연어 수출이 40%나 감소했던 스코틀랜드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 가공업자들은 다음 주 스코틀랜드 지역의 현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이맘때 신선 연어의 평균 가격은 1kg 당 75 크로네(약 7.5달러) 정도였으며, 이후 공급과잉과 유럽의 장기화된 무더위로 인해 7, 8월 가격은 하락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산업계는 양식업이 이번 위기에서 최악의 시기는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매주 가격이 반등할 수 있지만, 점차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 할 때가 이번 위기의 진정한 반환점이라고 보고 있다.

| 원문 | <https://www.fishfarmermagazine.com/news/salmon-prices-starting-to-spike/>

2020년 세계 포워딩시장 성장률 최대 7.5% 감소 예측

세계 포워딩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조사업체 Transport Intelligence(이하 TI)는 2020년 세계 포워딩시장 성장률이 최대 -7.5%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I는 세계 경기가 올해 말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현재의 영향"과 유행이 장기화되는 "심각한 영향"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포워딩시장 성장률을 산출했다. 팬데믹 이전 2020년 시장 전체 성장률 예측은 +2.5%였으나, "현재의 영향"에서는 -2.0%, "심각한 영향"에서는 -7.5%로 예측되었다. 항공화물의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은 +1.8%였으나, "현재의 영향"에서는 -2.8%, "심각한 영향"에서는 -7.7%가 예상된다. 해상화물의 경우 2020년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은 +3.1%, "현재의 영향"에서는 -1.1%, "심각한 영향"에서는 -7.3%로 예측되었다.

TI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온 컨테이너선사는 팬데믹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사슬 조정에 따라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소비지 근처 등에 분산될 경우 중국 발착 무역의 중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선 등 경제성 재검토가 필요하고, 역내 수송 증가에 따른 장기적으로 수송비 증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형선 전용 항만 인프라 신규 투자 및 해상수송에서 육상수송으로의 수송수단 전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 원문 | <https://secure.marinavi.com/news/search/?GoSearch=1&SearchStartYear=2020&SearchStartMonth=04&SearchStartDay=25&SearchDateOver=&SearchEndYear=2020&SearchEndMonth=05&SearchEndDay=25&SearchWord=%E7%89%A9%E6%B5%81&SearchWordCond=AND&SearchPeriod=1m&ShowSort=DESC&ShowRow=10&ShowSentence=false&ShowPage=1&ShowSort=DESC&ShowRow=10&ShowSentence=false&ShowPage=1>

세계 물류·공급사슬 산업 시장,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32억 달러 규모 전망

코로나19 이후 세계 물류시장 규모는 2020년 27억 3,400만 달러에서 2021년 32억 1,5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2021년 추정치는 코로나19 이전의 추정치보다 약 10~15%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물류시장의 주요 동인으로는 필수 물자 공급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공급사슬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신설, 개인 보호 장비의 수요 및 유통 증가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물류 및 공급사슬 업체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서는 주요 제품의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은 점차 복구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물류 및 공급사슬 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는 DHL(독일), UPS(미국), FedEx(미국), Kuehne & Nagel(스위스), CEVA Logistics(스위스), DB Schenker(독일) 등이 있다.

| 원문 |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covid-19-impact-on-logistics-supply-chain-industry-market-244593137.html>

디지털 조선소 시장, 2030년까지 39억 6,7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디지털 조선소 시장은 2020년 6억 9,300만 달러 규모이나, 2030년에는 39억 6,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의 현대화 및 조달 계획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혁신기술의 도입이 다가오는 디지털 조선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에 대한 수요 증가가 디지털 조선소에서의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기획은 디지털 조선소라는 개념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3차원 프린팅, 로봇 처리 자동화,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이 포함된다. Siemens(독일), Dassault Systemes(프랑스), AVEVA Group Plc(영국), Accenture(아일랜드), SAP(독일), BAE Systems(영국) 등이 디지털 조선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원문 | <https://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digital-shipyard.asp>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LNG 수요 감소

노르웨이의 에너지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석유가 다른 연료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로 폭락하고 저장고가 가득차면서 LNG가 그 다음으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 세계 LNG 공급량은 3억 8,000만 톤으로 2019년에 비해 1,700만 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요는 2019년 보다 단지 600만 톤 상승한 3억 5,900만 톤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동북아시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2020년의 첫 두 달 동안 영국, 스페인, 벨기에를 중심으로 LNG 수입을 전년대비 35%나 늘으나, 현재는 유럽의 경기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라이스타드는 덧붙여서 그 영향은 여름에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원문 | <https://safety4sea.com/covid-19-declines-lng-demand/>

호주, 산호초 백화현상을 예방할 인공구름 조성실험 실시

호주의 대보초(大堡礁, Great Barrier Reef)는 지금까지 5년간 백화현상(bleaching)을 세 번 겪었다. 해수면 온도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면 산호초는 스트레스를 받아 다양한 색채를 지닌 해조류를 방출하게 되며, 이후 이러한 산호초는 하얗게 변화하게 되는 이른바 '백화현상'을 겪게 된다. 백화현상은 산호에게 항상 치명적인 것은 아니나, 현상이 심할수록 산호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유엔기후변화위원회(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경우 70~90%의 산호초가 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한 바 있다.

호주의 시드니 해양과학센터(Sydney Institute of Marine Science Centre)와 서든크로스대학(Southern Cross University)의 연구진은 이러한 산호초의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구름(Artificial Cloud)' 조

성으로 알려진 한 기술실험을 실시하였다. 인공구름 조성실험은 먼저 두 개의 고압 터빈을 사용하여 미세한 소금입자를 해수면 안으로 분사한다. 그리고 이 입자는 산호초 윗부분에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구름은 태양열을 반사하고 산호초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 궁극적으로는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산호초의 백화현상을 예방한다. 인공구름 조성실험은 호주 정부가 대보초 보호를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여 실시되었다. 향후 5~10년간 3종류로 분류되는 호주의 국가연구 프로젝트에는 인공구름 뿐만 아니라 열 강화 산호 번식, 3D를 이용한 손상암초 개선, 산호 유충 생존을 위한 Ocean Pool 프로젝트가 포함될 예정이다.

| 원문 | <https://www.euronews.com/living/2020/04/20/artificial-clouds-could-save-vulnerable-coral-reef-from-climate-change>

미국 코넬 대학,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자외선 분해 소재 개발

미국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화학분야 연구진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새로운 고분자 합성수지(polymer)를 개발했다. 어업용 어구 중 어망·로프는 주로 동위원소 폴리프로필렌(isotactic polyprop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나일론(nylon-6,6)과 같은 세 종류의 고분자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데, 이 중 쉽게 분해되는 것은 없다. 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나일론 등 기존 어업용 난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버금가는 기계적 강도를 지닌 대체소재 개발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 있었다. 코넬 대학 Coates 교수와 연구팀은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적 강도를 보다 더 향상시킨 동위원소 폴리프로필렌 산화물, 일명 iPPO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소재를 연구·개발해 왔다. iPPO 소재는 원래 1949년에도 존재해 왔으나, 그 당시에는 해당 소재의 기계적 강도나 분해성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iPPO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이거나,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결국 분해된다. 플라스틱 구성의 변화는 분해 속도 또한 광도에 따라 다르다.

| 원문 | <https://www.theweek.in/news/sci-tech/2020/04/29/scientists-invent-faster-degrading-plastic-to-reduce-ocean-pollution.html>

해양수산산업



영국 HydroWing사, 조류에너지로 수소 생산하는 부유식 플랫폼 개발

영국 HydroWing사는 네덜란드의 Tocardo사와 협업하여 바다에서 녹색 수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THyPSO(Tidal Hydrogen production, Storage and Offtake)는 부유식 플랫폼이다. 조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기존의 1-6 개의 양방향 조력 터빈을 통합한 수소 생산 장치를 통해 주변 해수를 수소로 변환한다. THyPSO 프로젝트는 또한 녹색 공급 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THyPSO는 가압 저장 탱크에서 최대 2주 분량의 수소 생산량을 보유할 수 있다. THyPSO는 조석 기술과 수소 기술의 장점을 결합했다. 이에 따라 각 기술이 안고 있는 기술적·재정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한계가 남아있다.

〈HydroWing사의 조류에너지 기반 수소생산 플랫폼〉



출처: HydroWing

| 원문 | <https://www.offshore-energy.biz/hydrowing-tocardo-converting-tides-into-hydrogen/>

미국 Vigor Fab사, ABB사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체결

미국에 본사를 둔 조선사인 Vigor Fab사는 ABB를 Washington State Ferry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 이로써 이 여객선은 미국에서 무배출 운항이 가능한 최대 여객선 체계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여객선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면서도 차량 144대

와 1,5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선박은 2024 년에 인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배터리 전원으로도 완전히 작동 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 할 수도 있다. Vigor Marine Fabrication 부회장 Jay Hebert은 “공간 효율성이 높고 설치가 쉬운 하이브리드 및 전기 추진 솔루션을 활용하여, 2019년 배출량보다 57.5% 낮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워싱턴주의 2050년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원문 |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abb-hybrid-electric-propulsion-vigor/>

중국 Cosco Shipping, 샤먼항에서 5G 지원 자동 차량 시험 완료

중국 COSCO의 자회사인 Cosco Shipping Ports(CSP)은 중국 샤먼항에서 5G 지원 자동 차량 시험을 완료했다. 시험운행은 지난 5월 11일 차이나모바일, 동평자동차 등과 함께 진행했다. 해안교 102번 옆에 정박한 COSCO Shipping Rose 선박에 선적할 컨테이너를 운반하였다. 또한 해안교 101번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수거했다. 트럭은 부두 앞쪽 Jingyi Road로 운전하여 F1 야드로 들어가는 도로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했다. 타이어 크레인과의 정확한 위치설정과 하역 등 다양한 작업을 완료해 선박 하역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CSP와 협력사는 상하이, 홍콩, 베이징, 우한, 시안, 샤먼 등에 중계된 5G 무인화 스마트 포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협력사들은 5G + 스마트 포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국내 및 국제 스마트 포트 구현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항만 내 컨테이너용 무운전자 트럭에 대한 성능 및 시험 방법의 공동 기업 표준을 발표했다.

〈Cosco Shipping Ports의 5G 지원 자동운행차량〉



출처: Cosco Shipping Ports

| 원문 |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cosco-shipping-5g-automated-vehicle-trial-china/>

러시아 Russian Crab Group사,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실적 호조

코로나19 여파에도 Russian Crab Group사의 2020년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Russian Crab Group사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합작회사로서 19척의 게잡이 전용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Russian Crab Group사가 코로나19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i) 기업차원에서 충분한 어획 쿼터 획득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과, ii)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에서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Russian Crab Group사가 획득한 게 어획 쿼터는 1만 2,970톤으로 러시아 전체 게의 총허용어획량의 19%에 달한다. Russian Crab Group는 1분기에 게 어획량은 2천 톤이 넘는 수준으로 동기간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체 게 어획량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Russian Crab Group은 1분기에 어획한 게를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였는데, 러시아에서 중국으로는 최대 물량을, 일본으로는 활 털게를 유일하게 수출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룹의 CEO인 Dmirty Trubnikov는 올해 할당된 쿼터를 모두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투자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 선박 건조 프로젝트 또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원문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business-finance/russian-crab-group-ceo-satisfied-with-q1-make-s-positive-forecast-for-2020>

영국 Kuul Foods사, 해산물 판매용 전자 상거래 플랫폼 출시

소프트웨어 개발자 Kuul Group의 유통계열사인 Kuul Foods는 영국의 수산물 기업이 온라인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새로운 판매 플랫폼을 발표했다. 사용자에게 이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되며, 온라인 주문 및 결제, 판매, 주문, 수익 및 재고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관련 지식이 많지 않거나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수산물(B2B 및 B2C)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 기업은 브랜드에 맞게 온라인 상점을 맞춤화하거나 자신의 전자상거래 페이지를 소셜 미디어 계정과 연계할 수 있다. Kuul Foods는 해당 플랫폼 개발을 위해 100년 넘게 해양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자선단체인 Seafarers UK와 어업 신탁인 FCFCT(Fishmongers' Company's Fisheries Charitable Trust)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 원문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ew-e-commerce-platform-launched-to-boost-uk-seafood-sales>

일본 Daifuku사,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자재관리시스템 매출 신장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물류업계에서는 창고 내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재관리(Material handling)'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가정 내 소비가 확대되어 자동화 설비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제조업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업계의 자동화 대응 자재관리

시스템이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재관리시스템 선도기업인 Daifuku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2020년 3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 매출액이 3.7%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물류 업계의 화물 소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화물의 자재관리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Daifuku사는 설비 경량화 등을 통해 물류 센터에 간단하게 설치하여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문 | <https://www.sankeibiz.jp/business/news/200521/bsc2005210500001-n1.htm>

해양수산정책



미국, 안정적 식량 공급위해 7천만 달러 규모 수산물 수매 결정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현지시각 5월 4일 월요일, Section 32 권한에 따라 코로나 19 재난 회복을 위한 식품 수매 세부 계획을 밝혔다. Section 32는 1935년 농업법에 근거한 미국의 국가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영양 보조, 재난 회복을 위한 식량공급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지원책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장 공급망 위축 등으로 인해 식품 구매가 어렵거나 식품 구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국민 지원을 목적으로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 농무부는 2020년 3분기에 총 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수매할 계획으로, 이 중 수산물에는 총 수매 금액의 약 15% 수준인 7천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메기류 3천만 달러, 대서양 대구류 및 붉은볼락류 2천만 달러, 알래스카 명태류 2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미 농무부는 전 품목은 자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매할 것으로 밝혔으며, 지원 체계는 Section 32에 따라 시장의 잉여 농축수산물을 수매한 후 국가전역에 분배하는 형태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인 빌 키팅(Bill Keating)은 금번 결정을 통해 북대서양 수산물이 국가적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었으며, 취약 계층과 생산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결정임을 강조하였다.

| 원문 | <https://www.ams.usda.gov/press-release/usda-announces-additional-food-purchase-plans>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seafood-suppliers-traders-forced-to-adapt-quickly-to-shifting-demand>

미국 상무부, 어업분야에 재해 자금 8천 8백만 달러 지원

미국 상무부 월버로스 장관은 Bonnet Carre Spillway 개통과 관련하여 2019년 전례 없는 담수 범람으로 지역 어업 재난이 발생한 앨라배마주,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8,800만 달러의 어업재해 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여러 부문의 어업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서식지 복원, 국영 선박과 어업 허가 환매 및 직업 재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기금 외에도 정부는 일부 어민 및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미국 농무부의 몇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서명하였다.

| 원문 | <https://www.marinetechologynews.com/news/gives-relief-fishing-communities-601777>

미국 NOAA, 해양 심층 탐사를 위해 업계와 협력

NOAA는 심해의 미지 지역을 탐험하고 지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Victor Vescovo가 이끄는 민간기업인 Caladan Oceanic사와 협력하려 한다. Victor Vescovo는 세계 5대 해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 도달에 성공한 인물이다. Caladan Oceanic사는 6,000m 이상의 수심에서 해역을 탐험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과 기술을 가진 파트너이다. NOAA와 Caladan Oceanic사의 협력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Caladan사는 NOAA 연구선인 NOAA Ship McArthur II를 인수하여, 탐사를 위한 심해 잠수 지원시설을 넣어 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Caladan사와 NOAA의 협력은 해양과학과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독점 경제 구역을 완벽히 맵핑하여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 관광 등 American Blue Economy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원문 | <https://www.marinetechologynews.com/news/teams-industry-explore-ocean-600478>

UN Global Compact, 해양 관련 공급망의 지속적 가동을 위한 권고안 발표

UN Global Compact*는 코로나19가 발생기간 동안 전 세계 해양 관련 공급망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정부 협력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세계 해양 관련 공급망이 계속 움직이도록 협력하지 않는다면, 해양에서 생산되고 운송되는 물품의 공급 지연과 차질은 상당한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14가지의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해양 관련 공급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속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접근방식을 나타낸다. 정부 연합으로 구성된 해양 공급망 유지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심 작업자(Key Worker)”지위 시스템을 채택하여, 중요한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해양 관련 공급망에서 실제 및 잠재적 중단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 UN이 추구하고 있는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스스로 경영전략과 운영에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출처: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원문 |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534-05-05-2020>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산업미래상 보고서 검토위원회 개최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지난 5월 18일 자국의 필수산업인 조선·해사부문의 산업 구조 및 경쟁 환경 변화,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논의 및 해사산업미래상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제4회 해사산업미래상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6월 신설한 「해양 산업 미래상 검토위원회」는 산학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업계 설문 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해사 산업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논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5대 추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5대 추진 정책방향은 첫째, 기업 간 연계·협력·통합 촉진, 둘째, 디지털 시대에 대응 한 산업구조 전환, 셋째, 관공선 분야의 기반 강화 및 해외 진출 추진, 넷째, 선박 배출가스 제로 실현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공헌, 다섯째, 내항 해운 과제 해결이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다.

| 원문 | https://www.mlit.go.jp/report/press/kaiji05_hh_000212.html

대만, 컨테이너선사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발표

대만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선사를 위한 300억 달러(약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향후 몇 달 동안 최대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화물 운송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이 항공 교통의 영향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무역 수요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운송 및 통신부가 발표했다. 이에 린 지아롱(Lin Jialong) 장관은 차이(Tsai)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전국 해운 산업이 전염병의 영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의 자금 대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한 1년간 2억 4,300만 위안(약 8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세계 컨테이너선사 7위와 8위인 에버그린해운과 양명해운이 구제금융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원문 | <https://safety4sea.com/taiwan-announces-1-billion-relief-for-container-shipping-lines/>

UNCTAD,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권고안 발표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숙박·요식업체의 잇따른 휴점 및 폐쇄로 인해 세계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0년의 세계 수산물 수출은 적어도 평균 대비 약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 최근 스페인 북부 항구에서 새우류는 스페인 정상 가격의 10%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북유럽·칠레에서 북미로 수출되는 연어, 송어, 대구의 가격은 최근 상당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됐다.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산물 수출량은 코로

나19 발생 이후 최대 30%까지 감소했다. 어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중해에서만 수산물 어획량의 약 80%가량이 감소되었다. 현재 해당지역의 어선 10%미만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규모 어업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UNCTAD는 어업분야에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정부가 그간의 어업 지원 정책을 재고하고, 특히 조업 선단의 어획 노력량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에서 벗어나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UNCTAD는 소규모 어업인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업활동 비용을 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지속가능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조업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UNCTAD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조업기간 연장 및 역량강화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이외에 △ 전자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한 불법 어업 예방·방지 지속, △ 수산물 위생 조치를 필미로 한 무역보호주의에 적절한 자제력 발휘, △ 신선 어류에서 고부가가치 가공 수산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 △ 수산물(식품)의 공급망 조정 및 운송·창고·물류 서비스 등의 강화를 통한 수산부산물 손실 최소화와 같은 정책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 원문 |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360>

영국 항만협회, 경제 회복을 위한 녹색 투자 및 Free-ports 촉구

영국 항만 협회(BPA)는 정부를 위한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회복하는데 항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Net Zero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해양 기금(Green Marine Fund)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메시지는 영국 항만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회복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항만들의 미개발 잠재력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영국의 모든 지역들을 그것과 함께 이끌어내는 회복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속적인 중기 현금 흐름 및 비즈니스 지원,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 해양 기금(Green Marine Fund)을 포함한 영국의 인프라 대규모 확장, 셋째, 대담하고 광범위한 포용적 프리포트 및 패스트 트랙 계획 정책이다. 이 계획에는 단기, 중기 및 장기적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경기회복의 첫걸음에 항만과 해양산업을 확대 어떻게 확대하고 활용할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향후 몇 년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불황의 여진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원문 | <https://safety4sea.com/bpa-calls-for-green-investment-and-freeports-for-economic-recovery/>

집필진 | 최석우, 최나영환, 고동훈, 박예나, 김태한, 이지원, 박찬엽, 김기수, 김지원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종합정책연구본부